##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다문품(多聞品) ②**

能爲師現道 능위사현도
解疑令學明 해의령학명
亦興淸淨本 역흥청정본
能奉持法藏 능봉지법장

많이 들으면 스승되어 도가 드러나게하고
의심을 풀어주고 공부가 밝아진다
청정한 근본자리를 펼치게하니
능히 법장을 받들어 지녀야한다

能攝爲解義 능섭위해의
解則義不穿 해즉의불천
受法猗法者 수법의법자
從是疾得安 종시질득안

많이들으면 마음 다잡아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면 뜻을 천착하지 않아서
법을 받들고 법에 의지하는 이
이로부터 빠르게 안락에 들게된다.

若多少有聞 약다소유문
自大以憍人 자대이교인
是如盲執燭 시여맹집촉
炤彼不自明 소피부자명

# "많이 들으면 의심줄고 공부 밝아지니 법에 의지하는 이 빠르게 안락얻는다"

혹 다소간에 들은게 있다하여
스스로 대인인척 교만하게 굴면
이는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듯
남은 비추되 제 스스로는 밝지 못함 것과 같다.

夫求爵位財 부구작위재
尊貴昇天福 존귀승천복
辯慧世間悍 변혜세간한
斯聞爲第一 사문위제일

무릇 벼슬과 지위와 재물을 구해
높고 귀하기가 하늘 복만 하더라도
변재와 지혜가 세간 중에 강하기는
이 많이 들음이 제일일 것이다

帝王聘禮聞 제왕빙예문
天上天亦然 천상천역연
聞爲第一藏 문위제일장
最富施力强 최부시력강

제왕도 예로써 맞아 듣고
하늘 위의 하늘서도 또한 그러한데
많이 들음이 으뜸가는 법장이라
가장 부하고 힘이 세도다

智者爲聞屈 지자위문굴
好道者亦樂 호도자역락
王者盡心事 왕자진심사
雖釋梵亦然 수석범역연

지혜로운 이도 들으면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도 또한 그러기를 즐기며
왕도 마음다해 섬기고
비록 제석 범천이라도 또한 그러하도다

仙人常敬聞 선인상경문
況貴巨富人 황귀거부인
是以慧爲貴 시이혜위귀
可禮無過是 가례무과시

선인도 항시 공경하여 듣거늘
하물며 귀인이나 부자이랴
이에 지혜로써 귀함을 삼나니
예배할 것에 이보다 나은것 없도다

事日爲明故 사일위명고
事父爲恩故 사부위은고
事君爲力故 사군위력고
聞故事道人 문고사도인

태양을 섬김은 밝기 때문이요
어버이 섬김은 은혜 때문이며
임금 섬김은 힘 때문이요
많이 들은 까닭에 도인을 섬긴다

人爲命事醫 인위명사의
欲勝依豪强 욕승의호강
法在智慧處 법재지혜처
福行世世明 복행세세명

사람들은 목숨위해 의사를 섬기고
승자가 되고싶어 권세에 의지한다
법은 지혜있는 곳에 있으니
닦아서 복을 지으면 세세생생이 밝다

察友在爲謀 찰우재위모
別伴在急時 별반재급시
觀妻在房樂 관처재방락
欲知智在說 욕지지재설

벗을 찾음은 일을 꾀하기 위해서요
길벗과 갈라섬은 위급한 때요
아내를 맞음은 방사의 즐거움에 있다
지혜로운 이 알고자 하면 설법을 들어라

聞爲今世利 문위금세리
妻子昆弟友 처자곤제우
亦致後世福 역치후세복
積聞成聖智 적문성성지

들음은 현세의 이익이 되나니
처자 형제 벗에도 이롭고
또한 후손에까지 복이 미치며
많이 들어서 성인의 지혜를 이루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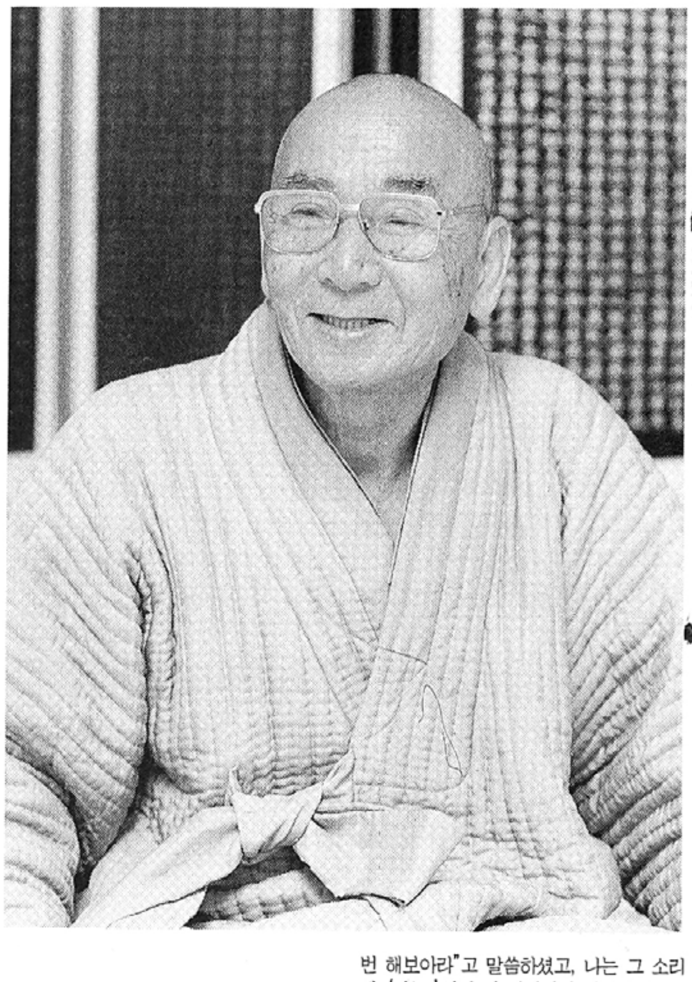
龍眼

---

큰스님 수행한담

# "매일아침 10분이라도

## 서암스님 〈前 조계종 종정〉



## "발등에 불끄듯 가장 급한 일은 꿈에서 깨어나 苦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렵다지만 팔만사천법에 길이 있어요"

"아침에 공기맑을때 독서하는 것은 죄악이다."

내가 어릴적 읽었던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제시절이라 책 빌려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늘 책을 가까이 했지요.

왜 아침 공기맑을때 책읽는 것이 죄악일까요. 오히려 권장할 일인데 말입니다.

종일 활동하다가 잠자리에 들기전에 과거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 그때 독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아침 그 신성한 시간에는 남의 찌꺼기를 들여다 볼것이 아니라 자기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마음에 어찌나 감명을 받았던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자기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은 후에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끈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종교를 갖는 신행활동이 다 여가시간에나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고 철학을 연구하고 모든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무슨 글을 배우기 위해서나 어떠한 기교를 배우기 위해서나 어느 종교를 믿기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다 복되고 행복하게, 진지하고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살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찰나를 살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노력해서 먹고사는 것들이 다 무엇때문일까요? 이 사는 목적을 밝히고 발견해야 합니다.

불교는 바로 그 사는 태도를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년도 못되는 세월동안 우리는 꿈틀거리며 무한히 헤매고, 한생뿐만 아니라 또 몸 받고 몸 받는 수없는 광겁으로 생사의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사없는 도리를 하나 밝히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쉬운 도리를 일러 주셨지만 모두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생사 없는 길에 몰아 넣기 위해 49년 동안이나 종으로 횡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꿈깨는 일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꿈깨는 문제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천하에 이보다 쉬운 법(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불교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들을 하지요. 가장 쉬운 이치를 두고 어렵다는 것은 겉으로 헤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다만 1시간이나 10분이라도 딱 앉아서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인식한다면, 그 시간은 참으로 빛나는 시간입니다.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잠깐 동안이나마 면밀히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생각해 본다면 하루 24시간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고 큰 빛이 됨을 직접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약력**
- 1914년 경북 영주 生
- 화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 일본대학 종교학과 졸업
- 심원사 전문강원 강사역임
-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역임
- 現 중흥사 주석

## "먼지의 입자하나 제대로 알아도 우주전체 이치 확연히 알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만사 화두 아닌게 없지요"

나는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어요. 일찍이 중농이었던 아버지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관계로 안동형무소에 투옥되셨고, 집안은 파산의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방랑를 하다 예천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민족의식에 눈을 뜬 분들이 설립한 조그마한 사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신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신문을 배달하고 밤에는 물건을 팔아 학비는 물론 집안의 살림도 도와야 했지만 육체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버텨가며 와세다 대학의 강의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많은 사람에게 질문하곤 했는데 흔쾌한 답을 얻지 못해 늘 답답했습니다.

그당시 나는 예천 서악사에 친구들과 가끔 놀러갔는데 어느날 서악사의 노스님을 만나뵙는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만해도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도 모르고 산중에 있는 중이 뭘 알까싶은 마음에 내가 아는 것을 뽐내며 대화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예전에 만났던 이들과는 달리 오히려 내 입이 꽉 막혀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내게 "그래, 네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 다 털어내고 네소리 한번 해보아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소리에 '아!…'하며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때까지 아는 소리란 소설보고, 책보고 배운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내안의 소리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 그만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님은 "너의 정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꽉 막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왔겠지만 또 그 어머니는 어디서 왔냐고 소급해 물으면 또 막힐 것이 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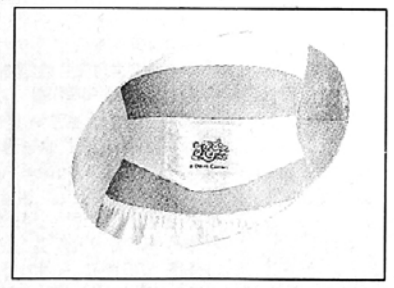
그래서 그 노스님과 며칠간 이야기를 해보니 예사 스님이 아니구나 생각돼 스님께 중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나 중되는 것 아니다 하시기에 며칠을 졸라 서악사 노스님 밑에서 2년 반동안 시봉을 하고 난 후, 김용사에서 화산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 한 뒤 한 3년동안은 경전공부와 참선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단의 추천을 받아 종비생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대학 종교학과에 입학하고서도 생계를

---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관음영지 소백산 구인사에서 3일간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룬다는데... 그 소문의 실체를 밝혀주는 책!!

대한불교천태종 신행수기모음 제1권

## 믿음으로 피운 연꽃

생의 뜻하지 않은 역경을 통해 오히려 진실한 믿음을 만나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몸소 체험한 신행인들의 이야기

"어떤 방법의 치료도 허사가 되고만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인사를 찾아 삼일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구인사도 절이니까 가서는 편히 휴식을 취하다가 오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 한숨 못자고 기도만 하다가 왔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남편을 보며 '그런 곳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그렇게 심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무사히 육지 가까이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고마움에 감동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기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도를 품에 지닌 채 봇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이튿날 구인사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 길이 절망의 문턱에서 희망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극적인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은 뒤에 피부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2권 **내가 만난 관세음보살**과 함께 전국 유명서점과 불교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국판 각 256면 정가 5,000원

**도서출판 열린불교**
서울·종로구 청진동 208 금강BD 302호 ☎ (02) 739-0108